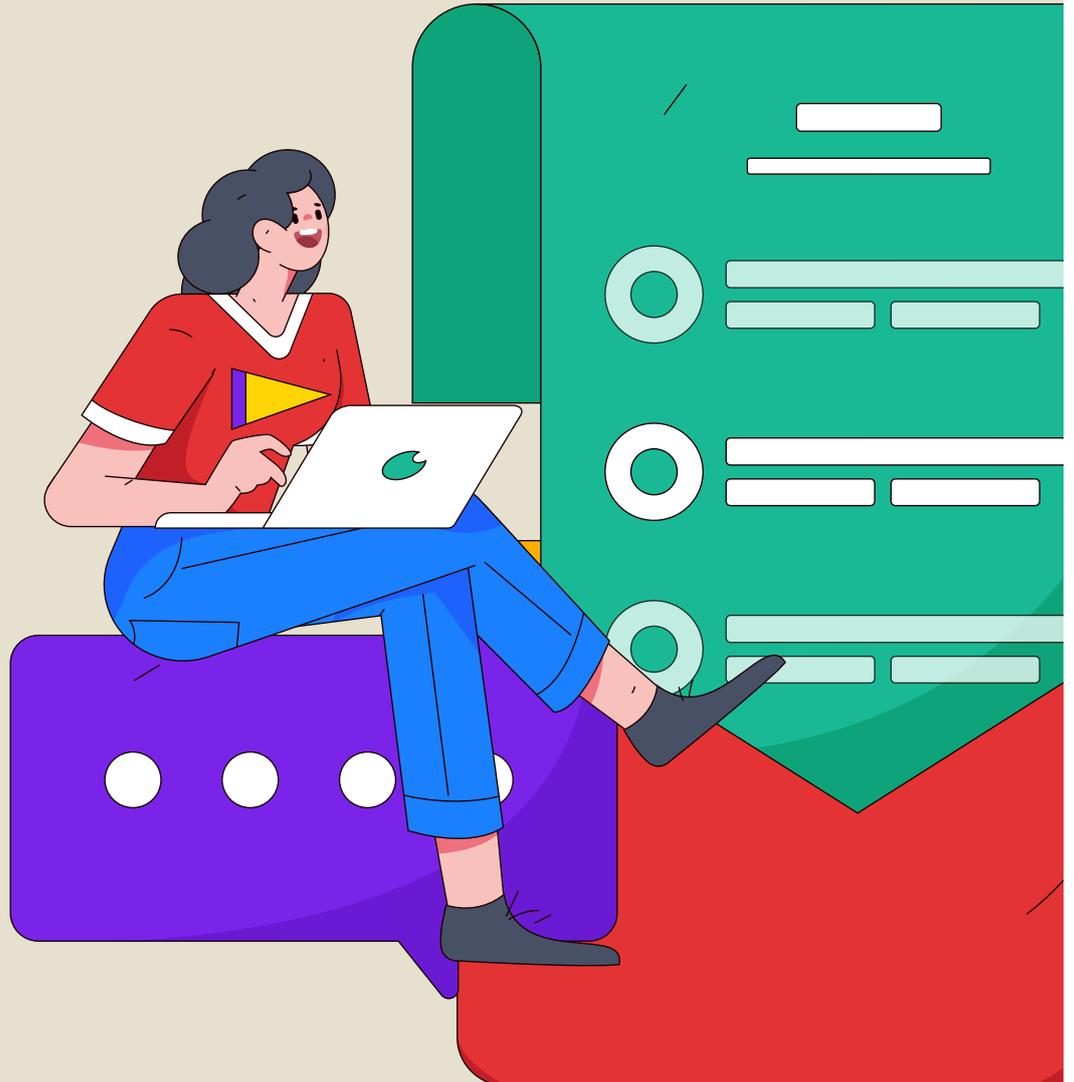


# 윈도우 11 고급 사용자 가이드 "나만의 최적화 비법과 숨은 설정 재발견하기"

- > 나에게 꼭 맞는 사용 환경 만드는 윈도우 11 필수 설정 20가지
- > "이것만 기억해도 생산성 100% 향상" 윈도우 11의 주요 키보드 단축키
- > "먼 미래 아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11의 AI 기능 10가지
- > 곧 사라지는 워드패드, 윈도우 11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임시변통' 방법
- > 한층 강화된 윈도우 11 기본 보안, 개인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유
- > "MS 계정 없이" 로컬 계정으로 윈도우 11을 설정하는 방법



# 나에게 꼭 맞는 사용 환경 만드는 윈도우 11 필수 설정 20가지

Martin Appel | PCWorld



© ITWorld

출시된 지 3년 동안 윈도우 11에는 여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모양과 느낌을 바꾼 주요 업데이트가 여러 차례 있었다. 구석 구석 탐색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놓치기 쉽다. 윈도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작 메뉴,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및 작업 표시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 시작 메뉴

### 시작 버튼 위치 조정

시작 버튼이 왼쪽 모서리에서 가운데로 이동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행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설정 앱에서 '개인 설정' → '작업 표시줄' 메뉴를 연다. '작업 표시줄 동작'을 클릭하고 '작업 표시줄 맞춤' 항목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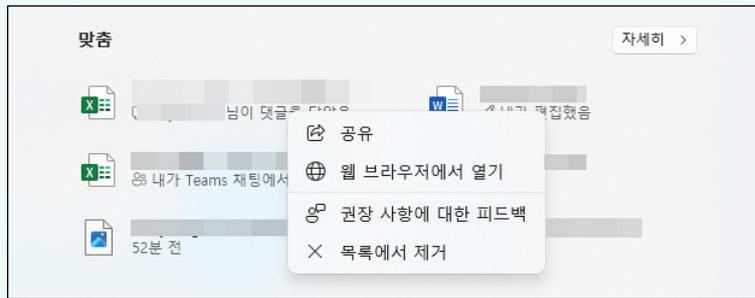
© ITWorld

### 고정 목록 확인

시작 메뉴도 새롭게 디자인됐다. 가장 큰 혁신은 바로 고정 기능이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앱을 자동으로 배치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시작 메뉴를 열어 오른쪽 상단의 '모든 앱'에서 고정하고 싶은 앱을 찾는다. 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시작 화면에 고정'을 클릭한다. 탐색기에서 검색한 폴더도 고정할 수 있다. 고정된 앱을 제거하려면 해당 앱을 마우스 우클릭한 후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선택한다. 앱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폴더를 만들어 묶을 수 있다.

### 권장 사항 제어

고정된 앱 아래에는 '맞춤'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아이콘이 나타난다. 더 긴 목록을 보려면 '자세히'를 클릭한다. 최신 문서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목록을 직접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한다.



© ITWorld

### 시작 메뉴 관리

시작 메뉴에 표시되는 항목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설정, 탐색기 또는 사진 폴더에 바로가기를 추가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설정 앱을 열고 '개인설정 → 시작'을 선택한다. 상단에서 레이아웃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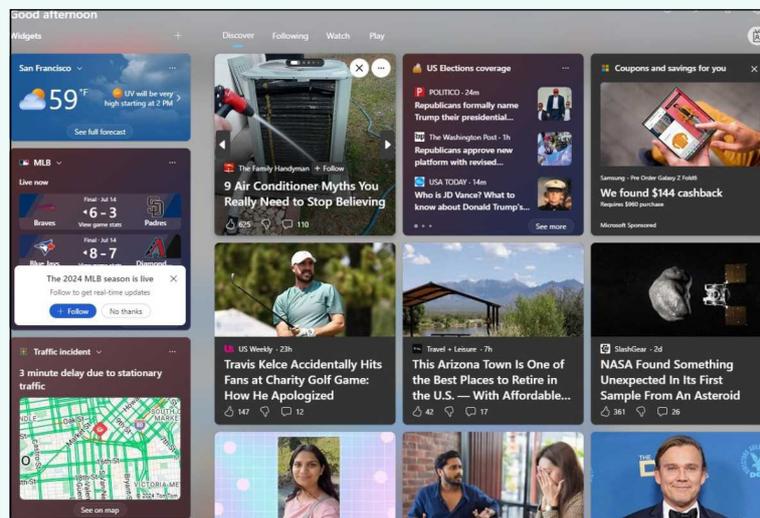
© ITWorld

을 선택하고, 아래 목록에서 표시할 구성 요소를 켜고 끌 수 있다.

## 위젯

### 위젯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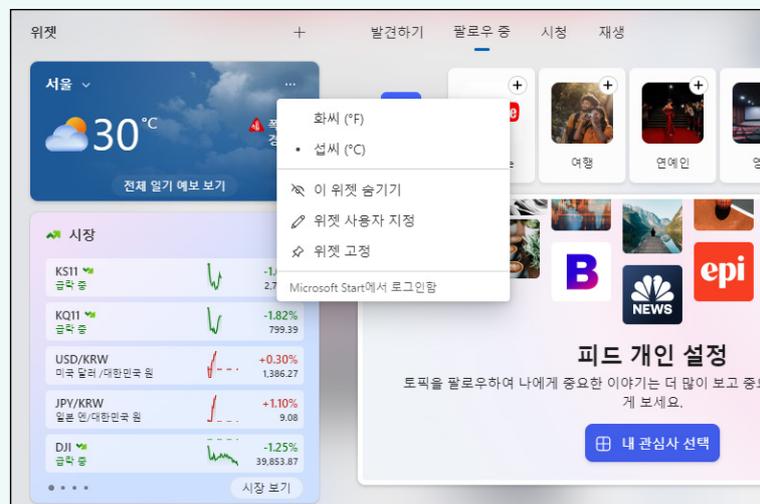
윈도우 11에는 위젯이라는 기능이 있다. 위젯은 일기 예보, 주가, 뉴스 등을 표시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시작 메뉴 아이콘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위젯 창을 연다. 보통 날씨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마우스 커서를 아이콘 위에 놓거나 키보드 단축키 Windows + W를 사용할 수도 있다. 위젯을 클릭하면 위젯 창이 최대화된다.



© Foundry

### 위젯 설정하기

위젯 창에 표시할 위젯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위젯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점 3개 아이콘이 있으며, 여기에서



© ITWorld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위젯 숨기기'를 선택하면 위젯이 제거되고, '위젯 고정'을 선택하면 항상 위젯이 표시된다. 위젯에 표시되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메뉴에서 '위젯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다. 날씨 위젯에서는 위치를, 주식 위젯에서는 종목을, 뉴스 위젯에서는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 위젯 추가하기

새로운 위젯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점점 더 많은 서드파티 업체에서 위젯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젯 창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새 위젯 검색'을 선택한다. 왼쪽 목록에서 찾거나 왼쪽 하단의 '더 많은 위젯 찾기'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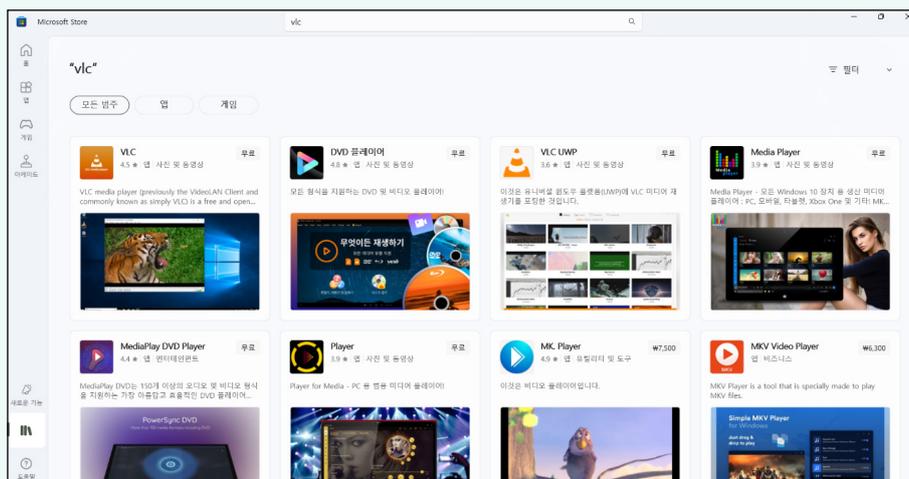
### 작업 표시줄에서 위젯 버튼 제거

위젯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업 표시줄에서 위젯 아이콘을 제거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작업 표시줄 설정'을 선택한다. 설정 앱으로 바로 연결된다. 여기서 위젯 토글을 비활성화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 프로그램 관리하기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11에도 프로그램(또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소위 최신 윈도우 앱만 다운로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다.



© ITWorld

시작 페이지 또는 작업 표시줄의 '쇼핑백' 아이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연다. 시작 페이지나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없다면 검색 상자에서 검색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상단의 검색 상자에서 검색한다. 필터를 사용해 무료 프로그램만 표시되도록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 프로그램 업데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단,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을 열고 왼쪽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개별 앱을 업데이트한다. 한 번에 모두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 앱 삭제하기

윈도우 11에서 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시작 → 모든 앱'에서 제거하려는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우클릭한 후 '제거'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른다.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설정 앱 → 앱 → 설치된 앱'으로 이동한다.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앱의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제거'를 선택한다.

## 작업 표시줄

### 작업 표시줄 설정하기

윈도우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막대가 작업 표시줄이다. 윈도우 11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작업 표시줄을 개인화할 수 있는 옵션이 적지만, 몇 가지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을 우클릭하고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한다. 여기에는 다음 4가지 옵션이 있다.



© ITWorld

- **작업 표시줄 항목** : 작업 보기 및 위젯 아이콘을 숨기거나 표시한다. 검색 상자 크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 펜 입력, 포인팅 키보드 및 가상 터치패드 아이콘을 숨기거나 표시한다.
- **기타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 다른 프로그램 및 앱의 아이콘을 숨기거나 표시한다.
- **작업 표시줄 동작** : 그 외 다른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앱의 깜박임을 제어하고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 정렬을 설정할 수 있다.

### 시스템 트레이의 숨겨진 아이콘 표시하기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에는 일부 아이콘이 숨겨져 있다. 다시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 Foundry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숨겨진 아이콘을 모두 볼 수 있다. 설정 앱에서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으며,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프로그램 추가하기

작업 표시줄에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바로가기가 포함돼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모든 앱'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우클릭한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타 →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선택한다. 프로그램이 이미 열려 있다면 작업 표시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우클릭한 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선택하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작업 표시줄에서 앱을 제거할 수 있다.

## 알림

### 알림 보기

윈도우와 개별 프로그램 모두 알림, 즉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다. 모든 알림은 한 곳에 모인다. 오른쪽 하단의 종 아이콘을 누르면 달력과 함께 알림 메뉴가 열린다. 알림을 클릭해 열거나 오른쪽 십자 표시를 눌러 삭제한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알림 제어하기

윈도우와 여러 앱에서 수신하는 알림 종류를 제어할 수 있다. '설정 앱 → 시스템 → 알림'을 연다. '알림' 항목 오른쪽에 있는 토글을 사용해 알림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다.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알림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림 소리를 켜거나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설정 페이지 하단의 '앱 및 기타 보낸 사람이 전송한 알림' 항목에서는 앱별로 알림을 제어할 수 있다.

### 방해 금지 모드 사용하기

휴대폰처럼 윈도우 11은 모든 알림을 일시적으로 끄는 방해 금지 모드를 제공한다. 오른쪽 하단의 시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알림창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활성화된다. '설정 앱 → 시스템 → 알림'에서도 방해 금지 모드를 켤 수 있다.



© ITWorld

###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 켜기

컴퓨터를 켜 놓고 잠을 잘 때, 게임을 플레이할 때와 같이 특정 시간에 방해 금지 모드를 자동으로 켤 수 있다. '설정 → 시스템 → 알림' 화면에서 '자동으로 방해 금지 켜기' 옆 화살표를 클릭하고 시간을 설정한다. 시간 설정뿐 아니라 '윈도우 기능 업데이트 후 처음 1시간 동안', '전체 화면 모드로 앱을 사용하는 경우' 등 상황별 설정도 지원한다.

### 방해할 수 있는 알림 설정하기

방해 금지 모드에 있더라도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방해 금지 모드에 예외를 추가하면 된다. 윈도우에서는 이를 '우선 순위 알림'이라고 한다. '설정 앱 → 시스템 → 알림'에서 '우선 순위 알림 설정' 항목을 클릭하고 허용할 서비스를 선택한다. 앱은 자유롭게 추가 및 제거할 수 있다.

## "이것만 기억해도 생산성 100% 향상" 윈도우 11의 주요 키보드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키보드 단축키를 외워 보자.

- Windows : 시작 메뉴 열기
- Windows + A : 빠른 설정 트레이 열기
- Windows + D : 데스크톱 보기(열려 있는 모든 프로그램 최소화 및 최대화)
- Windows + E : 파일 탐색기 열기
- Windows + H : 음성 명령 서비스 열기
- Windows + I : 설정 앱 열기
- Windows + N : 캘린더 및 알림창 열기
- Windows + L : PC 잠그기
- Windows + S : 검색 상자 열기
- Windows + T : 작업 표시줄 아이콘 선택하기
- Windows + V : 클립보드 열기
- Windows + W : 위젯 열기

# "번 미래 아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11의 AI 기능 10가지

Chris Hoffman | Computerworld

지난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에 모든 것을 걸었다. 모호한 부정 혐의로 오픈AI의 CEO가 축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혐의를 완전히 해명하지 않고 곧바로 복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주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현재 AI 기반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갖춘 차세대 윈도우 버전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AI는 이미 윈도우 11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AI 기능 중 상당수는 오래전에 발표되었고 이제 서서히 윈도우 PC에 적용되는 중이다.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탑재된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소비자 하드웨어에서 직접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아직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아직 코파일럿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AI 기능이 제공되는 위치에 있는 사용자는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이 풍부한 옵션을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AI 비서 코파일럿

코파일럿은 윈도우 11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생성형 AI 기능이다. Bing 검색이 내장된 데스크톱의 코파일럿 사이드바에서는 GPT-4 기반 LLM을 쓸 수 있다. 작업 표시줄의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Windows + C를 눌러서 열면 된다.

Bing 검색과 챗GPT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그인도 지원하는데, Bing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코파일럿 사이드바에서 검색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코파일럿은 윈도우 11 데스크톱과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나올 버전은 윈도우 데스크톱 경험과 훨씬 더 깊게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인터페이스도 정리 중이다. 다른 앱을 이용하다가 Alt + Tab으로 코파일럿에 접근할 수 있고, 사이드바 도킹을 해제해 일반 데스크톱 창에서 사용하는 기능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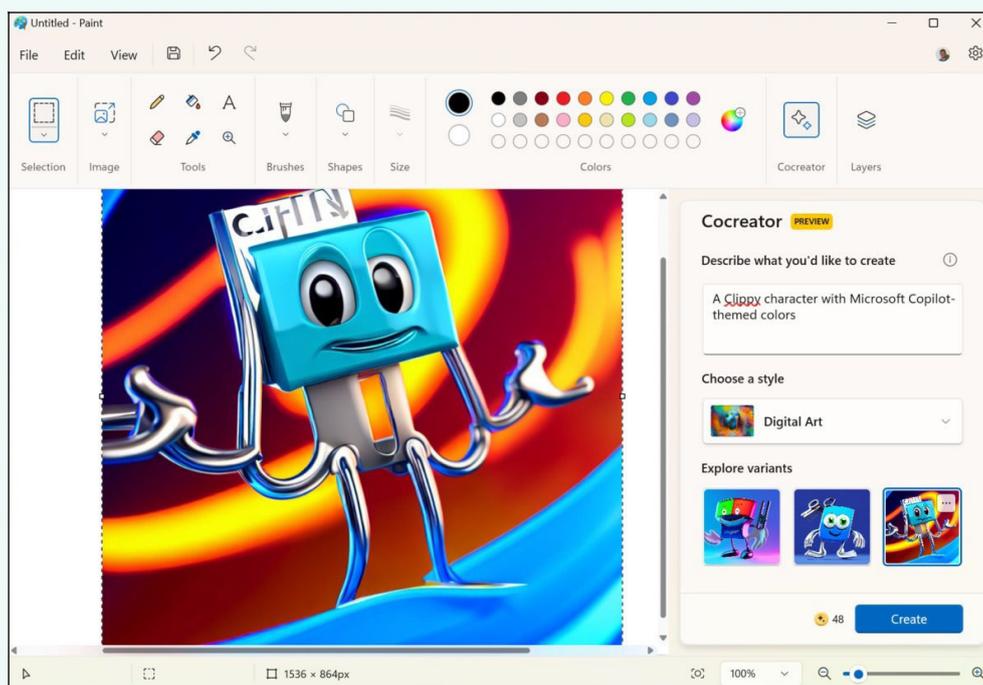


© Foundry

윈도우 10 PC에도 코파일럿이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윈도우 10 PC로 코파일럿을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점진적인 프로세스이므로 완료될 때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그림판 코크리에이터

윈도우 11의 그림판은 이제 AI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림판을 실행하면 툴바에 '코크리에이터(Cocreator)' 버튼이 표시된다. 윈도우 11 그림판은 오픈AI의 달리(DALL-E) 3 모델을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코파일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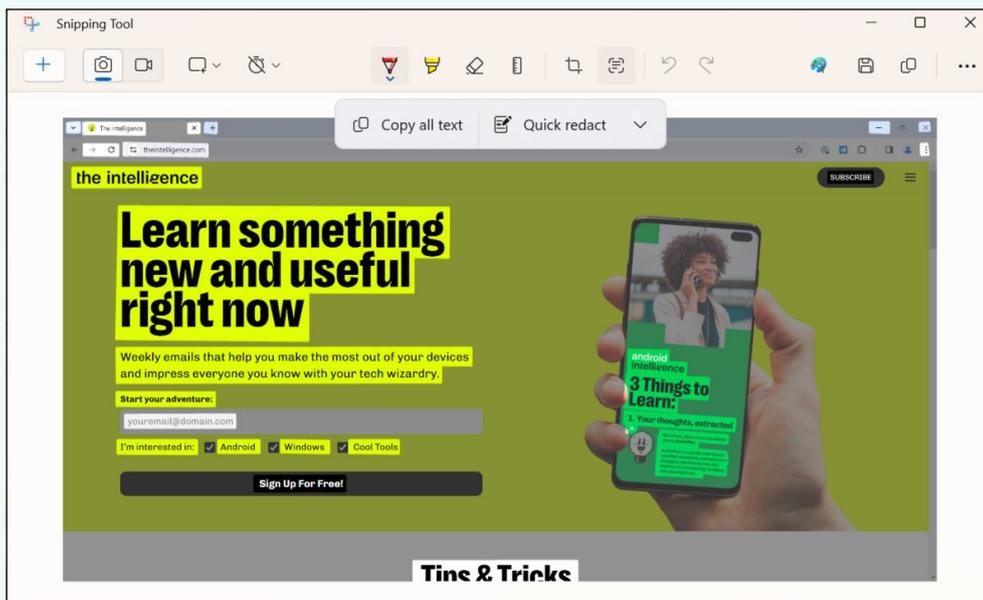
© Foundry

에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거나,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Bing Image Creator)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포토리얼리스틱", "픽셀 아트" 등 이미지의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다.

### 캡처 도구에서 OCR 지원

윈도우 11 캡처 도구는 이제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지원한다. 이 기능을 사용해 이미지, 또는 화면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무 부분의 텍스트를 복사해 다른 곳에 붙여넣을 수 있다. Windows + Shift + S를 눌러 캡처 도구 인터페이스를 열고 텍스트를 복사하려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그리면 된다.

스크린샷이 캡처됐다는 알림이 표시되면 클릭한다. 그 다음 캡처 도구 미리보기 창에서 '텍스트 작업'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린샷의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세부 정보를 가리는 작업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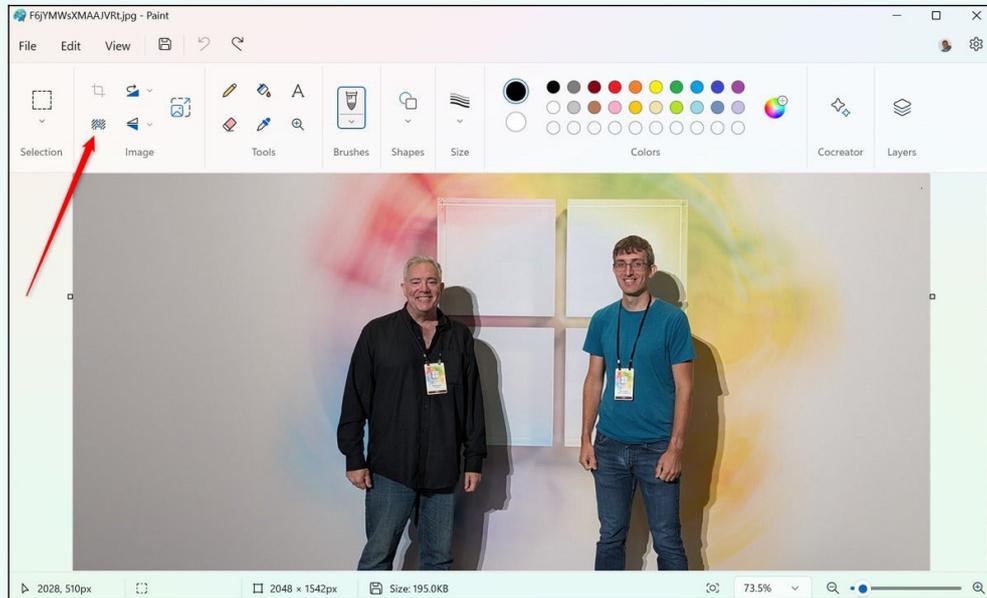


© Foundry

### 그림판에서 배경 제거하기

그림판에서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다. 먼저 그림판에서 이미지를 연다. 파일 탐색기에서 이미지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 → 그림판'을 선택하거나 그림판을 실행해서 툴 내에서 이미지를 열면 된다.

그림판에서 툴바의 이미지 섹션에 있는 '배경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판은 AI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배경과 전경을 탐지하고 배경을 지워준다. 이후 전경 요소를 다른 이미지에 붙여넣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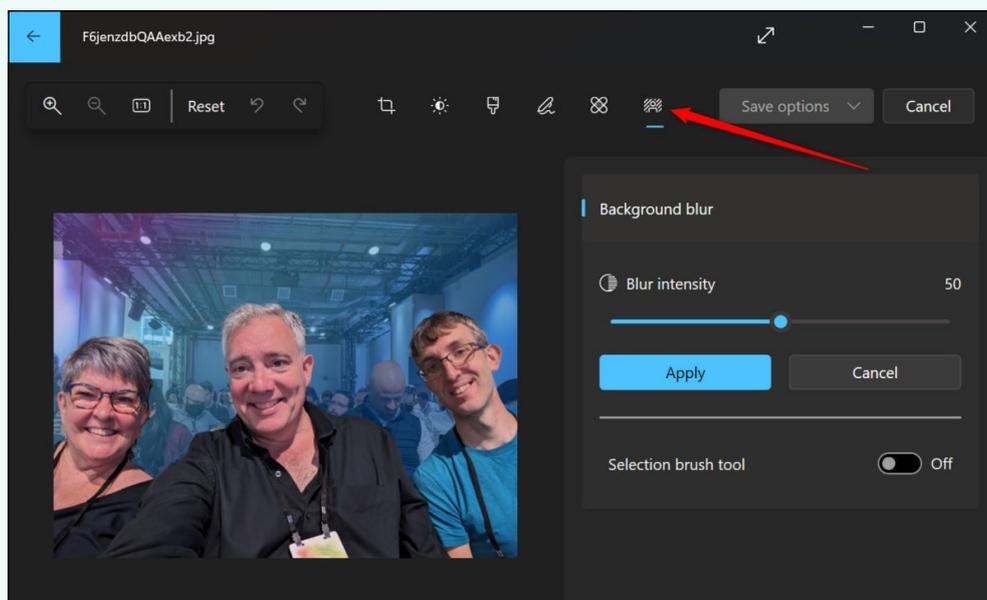


© Foundry

### 사진 앱, 배경 흐림 효과 지원

사진 앱에서 배경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먼저 사진 앱에서 사진을 열어야 한다.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연결 프로그램 → 사진을 선택하거나, 사진 앱을 실행하고 앱 내에서 이미지를 연다.

사진 앱에서 창 위쪽의 '이미지 편집' 버튼을 클릭하거나 Ctrl + E를 누른다. 그런 다음 툴바에서 '배경 흐림' 버튼을 클릭한다. 사진 앱은 AI를 사용해서 배경을 탐지한다. 옵션을 사용해서 배경 흐림을 맞춤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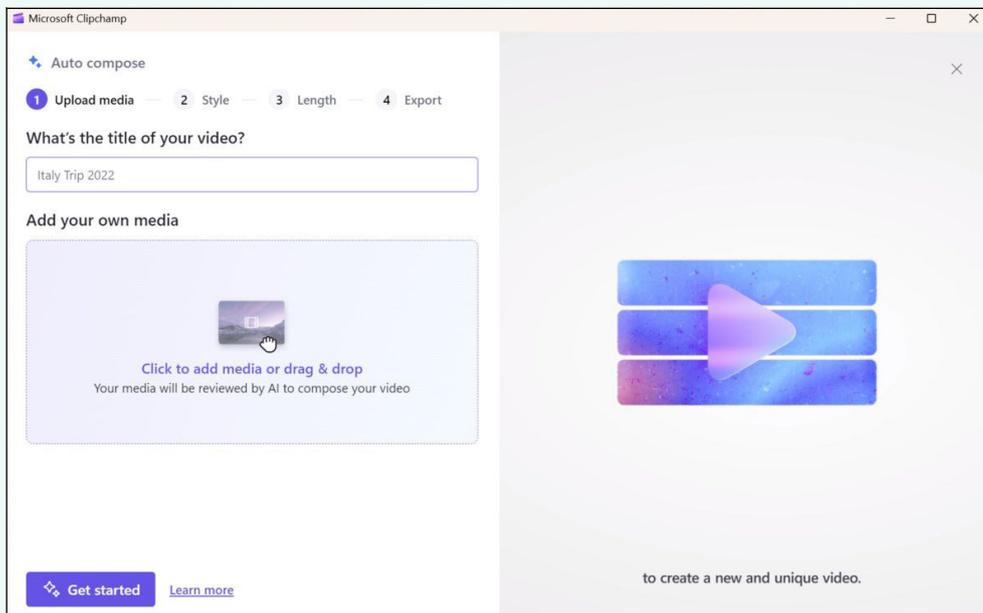


© Foundry

전경 요소는 변화 없이 배경만 흐려진다.

### 클립챔프에서 동영상 자동 제작하기

마이크로소프트 동영상 편집기 클립챔프(Clipchamp)에도 AI 편집 기능이 있다. 시작 메뉴에서 클립챔프를 실행하고 홈 탭에서 'AI를 사용해 동영상 만들기(Create a video with AI)' 옵션을 사용한다. 이후 톨에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동영상에서 강조할 부분을 찾아주고, 특히 클립챔프가 '스마트 AI 모델'을 사용해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 Found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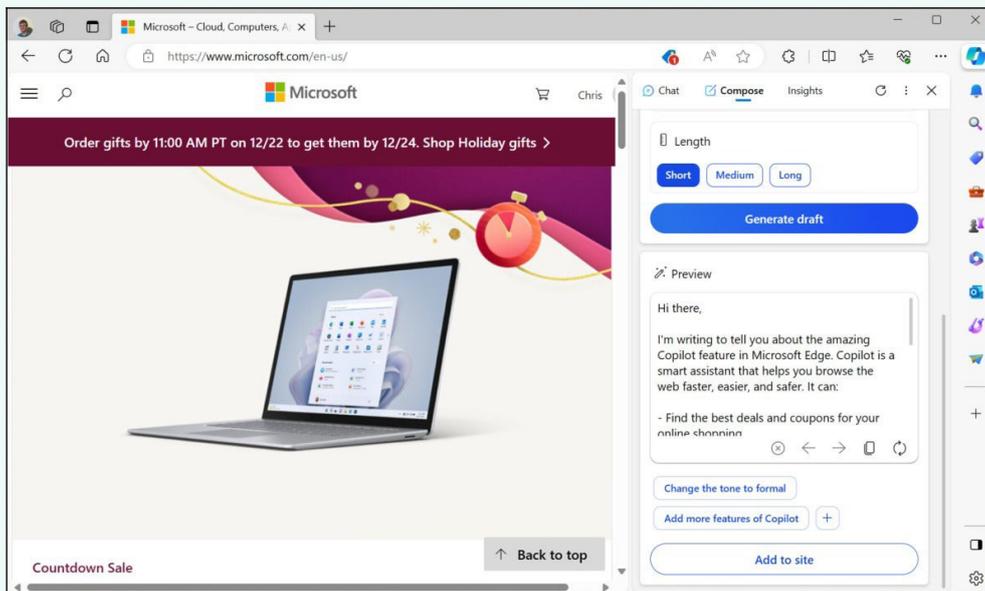
### 스마트 앱 컨트롤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스마트 앱 컨트롤도 윈도우의 새로운 기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능은 "AI를 사용해서 윈도우 11에서 다운로드해 실행해도 안전한 앱을 예측"한다. 새 윈도우 11 설치본에서만 제공되므로 대부분의 윈도우 11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PC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윈도우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만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다.

스마트 앱 컨트롤은 옵션 기능으로 유망해 보인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PC에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도록 윈도우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고급 사용자가 이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 옵션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엣지의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의 코파일럿 사이드바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윈도우 코파일럿과는 약간 다르게 작동함).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브라우저 툴바의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한다. 특히 흥미로운 기능은 '작성' 탭에 있다. 엣지를 사용해서 짧은 글, 이메일, 아이디어 목록, 블로그 게시물 등을 원하는 어조와 길이로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결과를 복사해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붙여넣거나 '사이트에 추가' 버튼을 사용해서 현재 웹사이트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 Foundry

##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

인텔, AMD, 퀄컴이 NPU가 탑재된 칩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윈도우에서 이런 칩의 활용도는 크지 않다. 윈도우 11에서 NPU 활용법을 하나 꼽자면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Windows Studio Effects)'를 사용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로컬 하드웨어로 화상 및 음성 통화에서 동영상과 소리를 개선하는 기능이다. 배경 효과(배경 흐림 등의 기능), 아이 콘택트(웹캠을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줌), 음성 포커스(말하는 동안 배경 잡음 제거) 등이 포함된다.

NPU가 탑재된 PC가 있다면 '시작 → 블루투스 및 장치 → 카메라'로 이동해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선택해 맞춤 설정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윈도우 11 자체에 내장된 기능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요란하게 선보인 AI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원노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된다.

아직은 기업 사용자만 구독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개인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2024년 중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사용자용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 사용자는 사용자당 월 30달러를 내야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속 기업에서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워드 문서 작성, 이메일 내용 요약을 비롯한 여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 2024년 더 확장될 윈도우의 AI

여기까지는 2023년 상황이었다. 2024년 말에는 데스크톱 인터페이스에서 AI가 더 중심이 되는 차세대 윈도우 버전이 출시되고, 그러면서 NPU가 필요한 AI 기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AI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AI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기 좋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윈도우 AI 스튜디오(Windows AI Studio) 같은 도구도 등장했다.

AI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 곧 사라지는 워드패드, 윈도우 11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임시변통' 방법

Laura Pippig | PCWorld

202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료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 워드패드 종료를 발표했다. 많은 사용자에게 워드패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대체하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앞으로의 윈도우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윈도우 시가 레거시 기능을 대체하면서 윈도우 11 24H2 버전은 워드패드가 기능하는 마지막 버전이 될 것이다. 이 업데이트는 2024년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다.

리브르오피스 같은 다른 무료 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워드패드를 선호하고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자.

### 윈도우 11에서 워드패드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

워드패드를 윈도우 11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4H2 이전 버전의 윈도우에서 여전히 워드패드를 지원하는 적절한 파일만 있으면 된다. (워드패드 폴더는 24H2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wordpad.exe는 없다.)

윈도우 11 버전 23H2 이상을 사용하는 윈도우 컴퓨터에서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이 파일 경로를 입력한다.

C:\Program Files\Windows NT\Accessories

이 폴더에는 다음 세 가지 데이터가 있다.

WordpadFilter.dll, wordpad.exe, 그리고 로컬 폴더(e.g., en-US). 이 3가지를 모두 USB나 외장 데이터 드라이브에 복사한다. 워드패드가 없는 컴퓨터와 연결한 후 모든 파일을 아무 폴더에나 붙여 넣는다. 영구적인 위치를 선택하고 '워드패드'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드는 것이 좋다.

모든 내용을 붙여 넣은 후 폴더에서 wordpad.exe 파일을 우클릭하고 추가 옵션 표시를 선택한다. 바탕화면으로 이동해 바로 가기를 만든다.

새로 만든 바로가기를 복사해 탐색기에서 C:\Program Files\Windows\Start Menu\Program Files로 이동한다. 여기에 바로가기를 붙여넣고 필요한 경우 이름을 바꾼다.

시작 메뉴를 열고 모든 앱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 워드패드를 찾는다. 이제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다. (검색 결과에 워드패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작 메뉴 등에 고정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앱 설정에서 워드패드를 사용해 문서를 열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설정 → 앱 → 기본 앱으로 이동한 다음 목록에서 워드패드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모든 RTF 문서를 워드패드로 열 수 있다.

### 윈도우 11 24H2에서도 안전한 방법인가?

윈도우 11에 워드패드를 설치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향후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워드패드에 기능이나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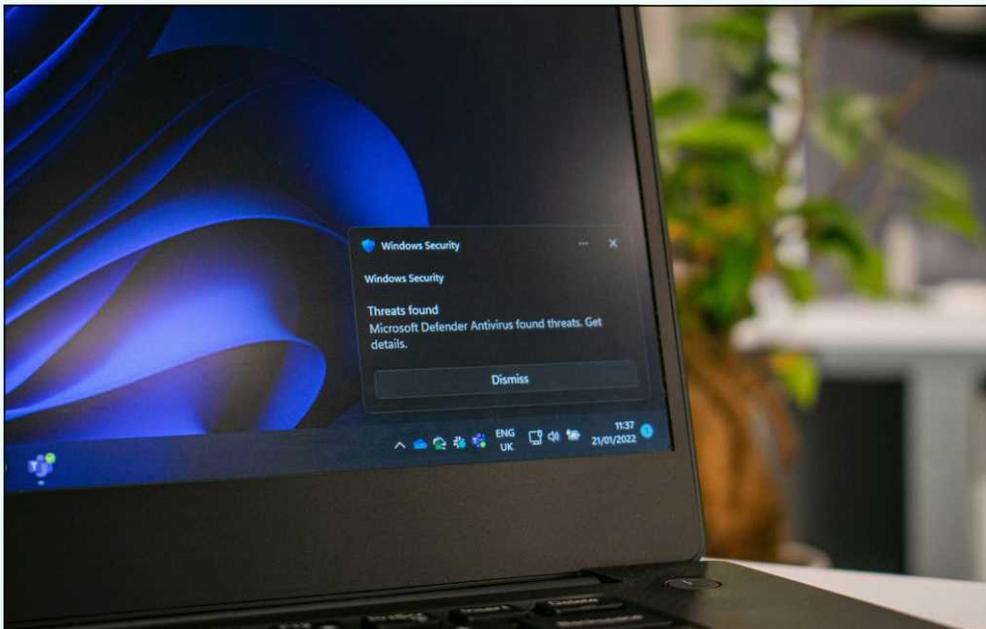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앱에 버그가 발생하거나 다른 요소와 호환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워드패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버전의 문서를 더 이상 워드패드로 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동안은 무료 텍스트 편집기를 예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층 강화된 윈도우 11 기본 보안, 개인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유

Jon Martindale | PCWorld

윈도우 PC를 보호하려면 서드파티 보안 제품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상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신 버전 윈도우에는 우수한 보안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 11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할까? 대답은 "그렇다, 그러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 Ed Hardie / Unsplash

## 윈도우 보안 간단히 알아보기

윈도우는 해커, 사이버 범죄,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던 윈도우 기본 보안은 지난 10년 동안 극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윈도우 11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윈도우 11에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윈도우 보안 안에 함께 묶여 있다. 일반 사용자가 서드파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윈도우 11의 보안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대다수 사용자에게는 그렇다.

윈도우 보안의 특징과 기능, 위협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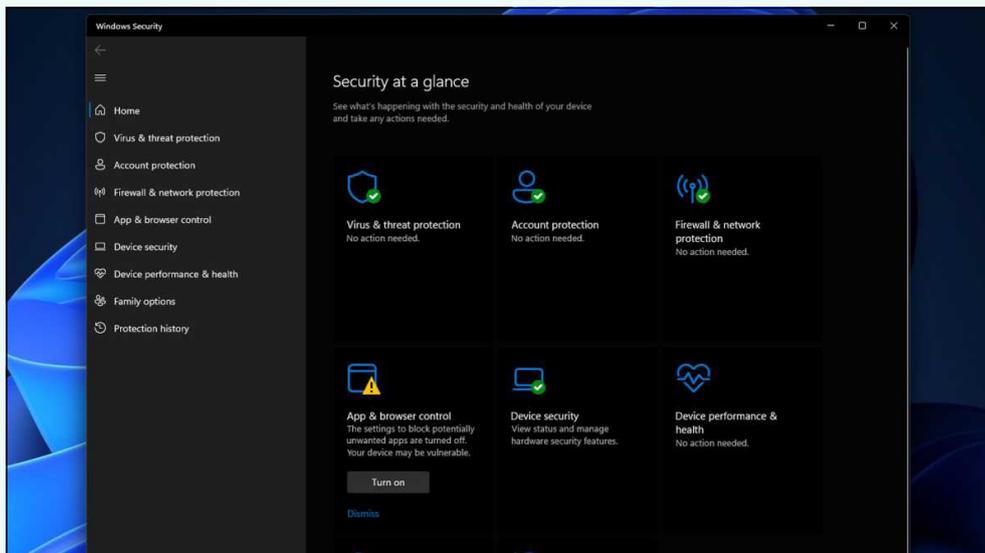
윈도우 XP와 함께 스파이웨어 방지 도구로 처음 출시된 윈도우 디펜더 백신은 최신 버전에서 더욱 강력해졌다.

윈도우 11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운영체제와 완전히 통합되어 설치되며 사용자를 계속 감시한다. 악성 파일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탐지하는 실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동 또는 예약된 악성 코드 검사를 실행할 수도 있다.

서드파티 테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다른 무료 백신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위협 탐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PCWorld 자체 테스트에서는 몇 가지 오탐지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파일과 폴더를 잠그고 관리자 승인 없이 악의적인 변경을 방지해 기본적인 랜섬웨어 보호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더 빠르게 식별하며, 새로운 악성코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호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윈도우 11의 윈도우 보안 대시보드에서 윈도우 디펜더를 관리할 수 있다.

© Jon Martindale / Foundry

##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스크린

독립 실행형 인디 게임이나 친구가 개발한 앱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윈도우가 막은 적이 있다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스크린이 작동한 것이다.

디펜더 스마트스크린은 악성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피싱 방지, 악성코드 방지 도구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 사이트와 실행하는 앱을 분석해 의심스럽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한 점이 감지되면 플래그를 표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해당 앱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몇 개의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스크린을 쉽게 우회할 수 있지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최소한 수행하려는 작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춰야 한다.

### 윈도우 방화벽

윈도우 방화벽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해 네트워크와 기기에 액세스하려는 악성 앱과 해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는 기기의 IP 주소, 사용 중인 포트 번호, 상호 작용하려는 앱 또는 서비스의 종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한다. 또한 특정 앱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의 인바운드 및/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할 수도 있다.

윈도우 방화벽이 신뢰할 수 없는 연결 시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하고 해당 연결이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막는다.

공용 네트워크에서만 실행할지 아니면 개인 네트워크에서도 실행할지, 어떤 종류의 트래픽을 필터링할지 등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자가 맞춤 지정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가드

윈도우 11에는 악성코드 방지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맞춤형 가드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의 일부로 제공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가드는 엣지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을 비롯한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앱에서 작동한다. 악성 위험이 있는 웹 사이트 및/또는 파일을 탐지해 윈도우 내에서 여는 대신 샌드박스에서 실행해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한다.

또한 악성코드 공격의 일반적인 벡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 클라이언트 또는 웹 메일 서비스 내에서 모든 실행 파일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오피스 문서 내의 링크를 클릭한 후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 해시와 같은 비밀 정보를 격리해 권한이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크리덴셜 가드도 있다.

윈도우 디펜더 가드는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만 기업 사용자를 위한 추가 옵션과 보호 조치를 통해 작업 방식과 특정 윈도우 기능 잠금 정도를 더욱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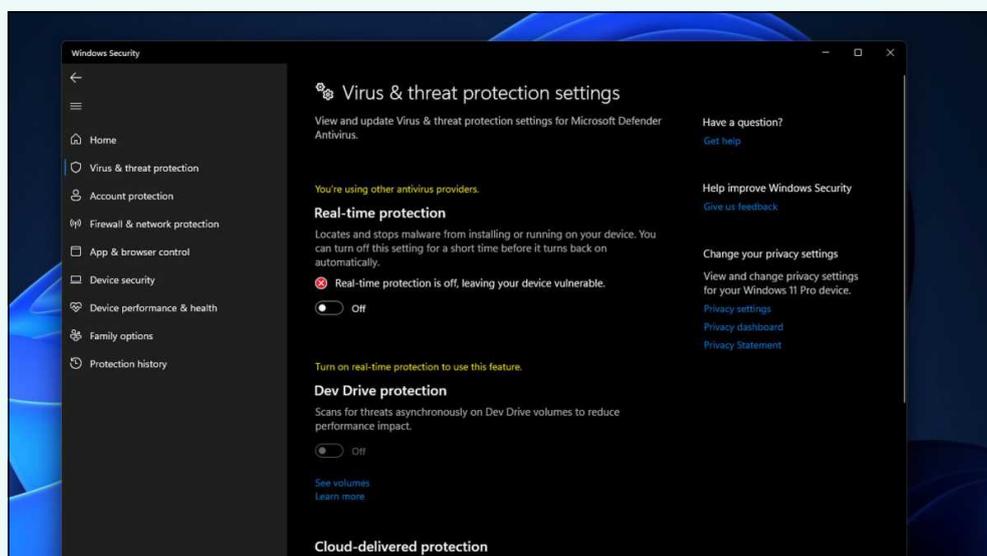
### 기본 윈도우 디펜더 이상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윈도우 11의 기본 제공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한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실제로도 보안 기능은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를 표시하는 한, 윈도우 11이 작동하면 독립형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윈도우 보안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특정 기능은 미리 적절하게 구성해야 하며, 윈도우 보안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보호 기능은 기본 수준에 그친다. 여전히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 수상한 웹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원하지 않는 파일 다운로드하지 않기
-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기



모든 바이러스 백신 또는 맬웨어 방지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와 함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 Jon Martindale /Foundry

스스로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유익한 사이버보안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윈도우 11의 기본 보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상세 설정을 변경해 성능을 극대화하면 된다.

하지만 판단력이 자주 흐려지거나 악성코드 또는 사이버 범죄의 희생양이 될까 봐 불안하거나 윈도우 디펜더에 없는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면 유료 바이러스 백신 제품군을 고려하라. 우수한 유료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은 VPN, 암호 관리자, 신원 보호, 자녀 보호, 원격 액세스 방어 등과 같은 추가 기능과 함께 악성코드 및 피싱에 대한 더 포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 "MS 계정 없이" 로컬 계정으로 윈도우 11을 설정하는 방법

Alaina Yee | PCWorld

윈도우 11을 처음 설정하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윈도우가 이더넷이나 무선 하드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윈도우 11을 처음 설정하는 것도 문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을 처음 설정할 때 사용자가 로컬 계정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인터넷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작 화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하라고 강요한다.

다행히 이런 강요를 우회할 방법이 있다. 단축키와 일부 명령어로 윈도우 11을 처음 설정할 때 로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정 과정에서 일단 '인터넷에 연결하세요'라는 안내 창이 등장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는 더 이상 설정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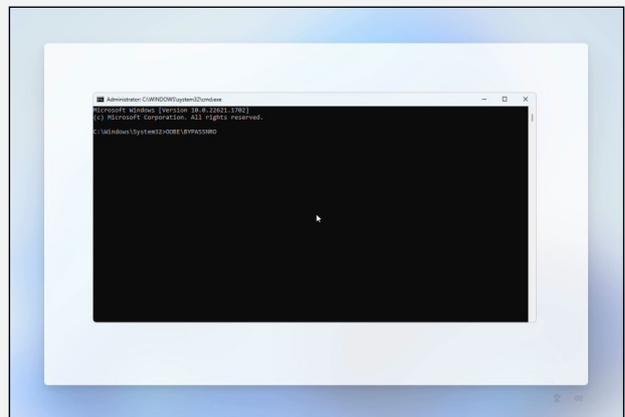


그림 1

© PCWorld

여기서 Shift + F10을 눌러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연다.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에 OOBEBYPASSNRO를 입력한다.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으므로 소문자로 입력해도 상관없다. 이제 PC를 재부팅하면 윈도우 11 설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세요' 창 직전 단계까지 진행해보자.

화면 하단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새로운 옵션이 보일 것이다. 이를 선택하면 일부 제한된 설정으로 다음 단



그림 2

© PC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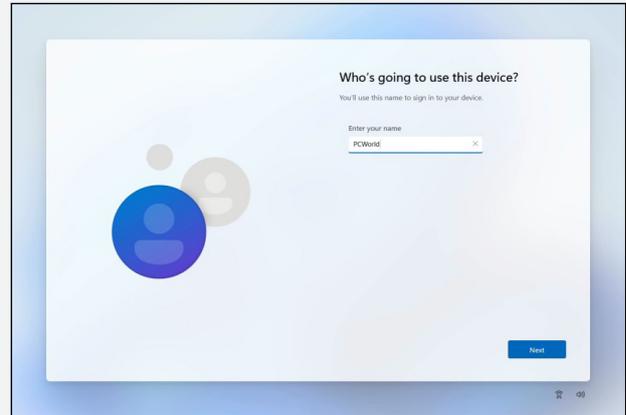


그림 4

© PC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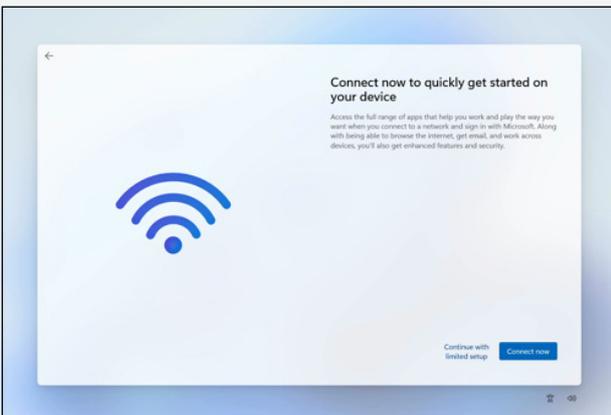


그림 3

© PCWorld

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사용 계약 관련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PC 이름을 정한다. 이제 암호와 보안 리마인더 질문을 만들면 마침내 익숙한 데스크톱 화면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윈도우 11이 이더넷 혹은 무선 기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한다. PC 완제품을 구매했다면 dell.com, hp.com 등 제조업체의 제품 페이지에 가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PC를 직접 조립했다면 메인보드 등 각 부품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야 한다.

일단 로컬 계정을 만들었어도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윈도우 11에 로그인할 수 있다. 설정 → 계정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도난이나 분실, 랜섬웨어 감염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내 PC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C를 자동으로 암호화하거나 문서, 사진, 영상 등의 폴더를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계정에 백업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상황에 놓이면 이런 기본적인 보안과 백업이 큰 도움이 된다.